

# 만남

2022년 2월  
통권 20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                     |    |
|---------------------------|---------------------|----|
| 신부님 칼럼                    | 청원기도-----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 4  |
| 전례의 숲                     | -----               | 7  |
| 영적 상담                     | -----               | 10 |
| 보물 창고                     | -----               | 12 |
| 성경 속의 사람들                 | -----               | 15 |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 17 |
| 이 달의 전례, 본당 살림살이          | -----               | 18 |
| 영혼의 샘                     | -----               | 19 |
| 공동체 소식                    | -----               | 20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21 |
|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               | 22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23 |
| 미사안내                      | -----               | 24 |

##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 청원기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청원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청원기도가 차원 낮은 기도, 초보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청원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친교에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청원기도를 올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지향을 보다 올곧고 순수한 것으로 정화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청원기도의 관건은 ‘무엇을 청할 것인가?’입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것들을 청하기만 해왔습니다. 때로 그 청하는 바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이어서 송구스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청해서 하느님을 곤혹스럽게 해드렸음을 후회합니다. 어떤 청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어서 슬펐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복권이 꼭 당첨되기를 바라며 바치는 9일 기도, 투자 가치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참여했는데 꼭 선정되기를 바라며 바치는 미사 예물,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승리를 위한 기도... 사실 이런 기도는 정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느님을 힘들게 하는 ‘억지요, 강요’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불사불멸을 청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의 작은 노력은 뒷전인 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동화 같은 인생의 반전을 청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뒷짐 지고 편안히 있으면서 하느님께만 공을 넘겨드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청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청원기도는 겹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원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좀 켜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기도 중에 하느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오가는 깊이 있는 영적 친교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겠습니다.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그분 앞에 내가 앉아 있고, 그분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께서는 사랑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루카 6,17.20-2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4장 “산상 교훈”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행복의 잔치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주님! 저희가 기뻐하게 하소서.
- ❖ 당신은 참된 행복으로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가 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6장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6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 20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 21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 24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 6 25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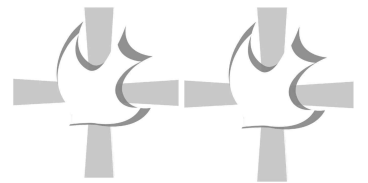
☞ 신앙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행하게 보일 지라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생각해봅시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미움을 사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그에 반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에 집중하는 하늘나라에서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의 행복은 결코 죽음 이후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필요도 없고, 마귀를 쫓아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행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4장 “산상 교훈”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 감실(심규재 실베스텔 신부님)

미사에서 영성체가 끝나면 남은 성체는 보관합니다. 보관된 성체로 미사 밖에서 영성체를 하고, 보관된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체는 보통 성합에 넣어 감실에 모십니다.

감실은 작은 상자 형태의 궤로서 성당에서는 벽에 많이 설치합니다. 따라서 미사를 거행하는 모든 성당에는 감실이 있습니다. 성혈은 남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대에서 사제나 다른 봉사자들이 모두 마셔야 합니다.

감실은 “천막”을 뜻하는 라틴어(tabernaculum)를 옮긴 말입니다. 12세기부터 교회가 성체 보관 장소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처음에는 성합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천을 가리킴). 이 말의 어원은 “임시 거처”로써 움막집 또는 천막집으로, 군인들을 위한 이동 막사를 뜻했습니다. 라틴말 성경은 구약 특히 탈출기에 나오는 “거처”(성막)를 이 낱말로 옮겼습니다.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은 사막에 세운 “이동 성소”로서 하느님의 거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이집트를 탈출한 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의 심장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걷는 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루카 24,13-35 참조). 성막은 다음 시대에는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감실은 빵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머무르는 하느님의 거처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초 세기에도 성체를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이나 은수자들이 성체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아마포로 감싸서 또는 알맞은 함이나 그릇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날마다 미사를 드리는 관습이 퍼지지 않은 시대에 성체를 자기 집이나 거처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식사 전에 먹었습니다.

3세기 문헌은 이러한 관습을 널리 알려줍니다. “모든 이는 비신자나 쥐나 다른 동물이 성체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떤 부분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체는 신자들이 모셔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사도전승 37). 신자들 집에 성체를 보관하는 관습은 5세기까지는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하고 지속적인 방식은 성당에 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단 가까이 있는 사제의 거처 또는 제의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성체를 작은 궤에 넣어 이 방에 모셔 두었습니다. 보관된 성체는 필요할 때, 특히 병자들 임종하는 이들에 분배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체를 신자들 집에 모시는 관습이 사라지면서 9세기부터 성당에 모시는 관습이 굳어졌습니다.

###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주 제대 위에 감실을 두기 시작

중세에는 성체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영성체보다는 성체를 바라보고 공경하는 새로운 신심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체를 보관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단순한 보관을 넘어 경의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13세기 성 프란치스코는 권고합니다. “교회의 명예 따라 성체를 소중한 곳에 모시고 자물쇠로 잠가 두어야 하며, 더없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옮기고 다른 이들에게 신중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체를 보관하는 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관습은 없었습니다. 보통 다섯 가지 방식을 구분합니다(M. 리게티).

△ “속죄 함”(Propitiatorium)이라고 하는 보석함 또는 금고 모양의 상자에 성체를 모신 성합을 넣어 제대 위에 모시는 방식입니다. 라틴말 “속죄 함”은 구약에 나오는 “속죄 판”과 같습니다.

△ 성체를 알맞은 궤에 넣어 제의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있었으며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지속되었던 방식입니다.

△ 금속으로 비둘기 형상을 만들어(성령을 상징) 거기에 성체를 모셨습니다. 보통 제대 위나 곁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 제대 가까이 있는 벽에 감실을 설치하여 성체가 든 성합을 보관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했기 때문에 13세기부터 널리 퍼졌습니다(로마 성 클레멘스 성당). 17세기부터 “제대 감실”이 퍼짐에 따라, 벽 감실은 성유를 보관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 탑 형태로 만든 용기로 제대 가까이 두었습니다. 금속 보호대를 넣어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체를 영속적으로 전시하는 “성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성체 보관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16세기는 개신교들이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교리를 부정하던 때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가톨릭교회는 성체 안의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 제대 위에 감실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습은 사목자들의(베로나의 지베르티 주교, 밀라노의 성 카롤로 보로메오) 노력으로 일반화되고 마침내 교회 규범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감실은 거룩함이 모독될 위험이 결코 없도록 닫아 두어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을 통하여 주 제대 위에 감실을 두는 관습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미사 거행 자체가 주님 현존의 시작이자 근본이고(전례 7) 보관되는 성체는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단의 중심은 감실이 아니라 거행의 기동인 제대와 독서대와 주례적입니다. 한편, 공의회 뒤에는 사제는 회중을 바라보고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감실은 미사가 거행되는 제대에 배치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성체는 감실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실은 성당의 한 부분에, 곧 제단 안이나(미사를 거행하는 제대 위가 아닌), 성당에 붙은, 기도와 조배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총지침 315).



아울러 감실의 재질과 관리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감실은 보통 하나이고 불박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불투명 재질로 만든다. 그리고 거룩함이 모독될 위험이 결코 없도록 닫아 두어야 한다.”(총지침 314).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체께 드리는 정성의 표시로 감실은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총지침 315). 마지막으로 감실 곁에는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께 공경을 드리는 뜻으로 언제나 특별한 등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지침은 등불을 밝히는 재료로 기름이나 초를 쓰라고 말합니다(총지침 316).

성체를 보관하는 근본 목적도 성체 공경보다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그 미사에서 축성한 성체를 모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미사 밖에서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유로나 죽을 위험이 있는 모든 신자는 미사 밖에서 노자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험이 길어질 때에는 여러 번 성체를 모실 것을 권장합니다(교회법 921조). 마찬가지로 사제들은 정당한 이유로 미사 밖에서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성체 신비 33).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영성체를 통하여 주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교회 가족에 결합되어 형제자매적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 질문

가족들이 늘 저를 속상하게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관리를 하지 않아 후줄근해 보여 속상하고, 아이들은 커가면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해서 속상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요.

##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가족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좀 증상이 심한 편인 듯합니다. 가족이 말을 안 들어 속상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속상함이 지나친 경우 본인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문제는 ‘완전강박증’입니다. 완전강박증은 ‘사람은 흠이 없어야 해.’ ‘사람은 완전한 인격을 갖춰야 해.’ ‘남편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아이들은 이러이러하게 커야 해.’ 하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준을 세우고 그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품고 속이 상하다고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늘 들볶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몰아세우고 들볶아대서 편안할 날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러온 삶을 살면서 자기의 불편함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니 성격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 치료에서는 이러한 조언을 드립니다. “완벽주의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히 물러나 쉴 수 있으려면 어떤 활동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을 고집하는 한 결코 뒤로 물러나 쉴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자신의 완전강박증세를 인식하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옵시고 또한 그 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마도 성인께서도 공동체를 운영하시며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이런 기도문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도 식물도 아닌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심리 기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심리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무지함이 부메랑처럼 속상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보다 개를 키우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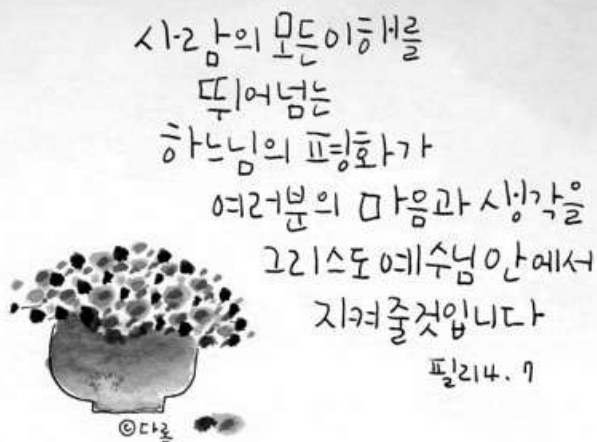
문제는 개처럼 순종적이다 못해 복종적인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질이 나쁜 성격 장애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해도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성질을 부리거나 혹은 하느님을 버리고 냉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을 찾아와서 아뢰길 “주님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생전에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한 자매가 천당에 와서 주님 곁에 있길 원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한번 병문안 가심이 어떠신지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좋아. 대신 자네가 그 자매와 딱 일주일만 같이 지낸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보세”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와 “주님 지난번 얘기는 없던 걸로 하지요. 그 자매가 어찌나 성질이 나쁜지 하루도 같이 있기 싫더군요. 그런데 그 자매를 어찌하면 좋을까요?”하고 물었지요. 주님께서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천당에서 쫓아낼 수는 없고 그 자매 비위를 맞추게 하려다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릴 수 있으니 천당 애견센터로 보내서 개나 키우게 함이 어떠하겠는가?” 그 후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질이 나쁜 사람들은 죽은 유기견을 키우는 천당 애견센터

로 보내진다는 소문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는 안 보이고 남의 문제만 보이는 경우 본인이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개 자기 문제는 안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 \* 성찬례 -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윤태종 토마스 신부님)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한결같은 바람은 주님과 만남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의 지향점은 주님과 만남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며, 치유하고 사명을 부여”(가톨릭교회 교리서, 1210항)하는 성사들 역시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주님과 만남으로 인도해줍니다. 그중에서 성찬례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과 친교를”(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2항) 이루게 함으로써 가장 탁월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찬례를 통해 얼마만큼 주님과 만남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아니, 성찬례가 이루어진 곳에, 특히 ‘가장 완전하게’ 주님이 현존하시는 영성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몸(성체)”이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영성체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2항 참조). 이로써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 “단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성 아우구스티노)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나의 친구”(요한 15,14)가 되시어,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과 내가 서로 안에 머물며 지냄으로써(요한 15,4 참조), 이제 그분의 힘과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찬례는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극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요(요한 13,1 참조), 생명의 빵으로 건네지는 성체는 당신 자신을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사제는 영성체 바로 직전에 둘로 쪼개진 성체를 들어 올려 회중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둘로 나뉜 빵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에게 한번 쏟아진 주님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거나 철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은 단연 성체를 모시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가톨릭교회에서 성체성사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만약 누군가 성찬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사랑의 성사, 73항 참조). 단연코 성찬례는 주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물”(성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 ※ 교회 -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님)

천주교 신자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Ecclesia)란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 즉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전례적 집회를 가리키지만, 지역 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거나 온 세계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1항-752항). 그래서 천주교회는 로마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교회와 각 지역에서 주교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별교회(교구), 그리고 신부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회(본당)를 구분하지만 모두 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죄와 욕망으로 점차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지요. 하지만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과의 사랑의 친교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땅 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전해지길 바라시며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열두 사도를 뽑아 당신의 희생 제사와 구원 사업이 계속될 조직,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미리 약속하셨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 사랑의 친교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보이는 집단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며 지키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758-801항 참조).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 ※ 화살기도(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1888년 1월 31일 돈 보스코 성인이 선종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인은 사망 후 즉시 공경의 대상이 되었고, 발살리체 살레시오 학교 내에 마련된 그의 무덤은 수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레시오회는 즉각적인 시복시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시복시성 과정에서 소위 ‘악마의 변호사’ 측이 제출한 가장 두드러진 장애물이자 지적사항 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족했던 성인의 기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측면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활동주의자였던 돈 보스코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조차 내기 힘들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무일도를 면제해달라고 청하여 면제받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성인품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늘 바빴던 돈 보스코는 과연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평생토록 성인을 수행해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살레시안 측 변호인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돈 보스코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돈 보스코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가난한 청소년과 동반하느라 비록 오랜 시간 성당에 앉아있지 못했지만, 삶 전체가 관상적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장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정녕 활동하는 관상가였습니다.”

살아생전 성인은 종종 따로 시간 내어 길게 기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도생활을 보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노력이 ‘화살기도’였습니다. “화살기도는 우리 영혼의 적, 유혹과 악습을 일거에 물리치는 불에 달군 화살입니다. 화살기도는 아침기도와 묵상을 요약하는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즉시 하느님께로 날아갑니다.”(돈 보스코 성인).

미사 독서나 복음, 강론 말씀 중에, 아니면 아침기도 시편이나 찬가 안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딱 한 구절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입니다.”(시편 18,3). 그리고 선택한 성경 구절을 하루 중 틈나는 대로 하느님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리듯 외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집을 나서며, 업무를 시작하며,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는 하루의 매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도입니다.

## ♥ 성경 속의 사람들 - 아담(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성경을 펼치면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세상의 창조와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2장-3장에는 에덴동산 이야기와 함께 ‘사람’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 범죄, 쫓겨나기까지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잠시 뒤로 물러났던 아담은 셋의 탄생과 그 뒤에 이어지는 족보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930년을 살았다는 최초의 인간, 누군가의 배를 빌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배꼽 없는 인간’이라고도 불리는 아담, 그에 대해 알아보시다.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장엄한 인간 창조 이야기(1,26-28)가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며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데 반해 2장은 ‘흙먼지로 빚어졌다.’고 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 모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느님 없이는 인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첫 머리부터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 이야기는 사람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땅은 생명체들의 근간으로 그려집니다. 아직 세상에 어떤 생명도 없을 때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적시고 하느님은 흙먼지를 모아 사람을 빚어내십니다(2,6-7). 땅에서 온갖 나무들이 자라나고(2,9), 동물들도 그 흙으로 만들어집니다(2,19). ‘아담’이라는 첫 사람의 이름도 ‘흙’(히브리 말로 ‘아다마’)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인간은 흙을 일구고, 생을 마치면 자신이 나온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이 생명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존재, 숨을 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합니다. 창세 2,7은 흙먼지로 빚어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고대의 다른 민족들도 사람이 ‘진흙과 신적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바빌론인들은 진흙과 신의 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집트인들은 신의 영혼이 인간 안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스 신화는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불꽃을 사람 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의 숨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간 안에 숨겨진 초월성 또는 신적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보다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생명, 생명의 숨결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하느님의 숨’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흙에서 나온 몸과 하느님의 숨을 예로 들어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풀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너무 나아간 해석입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 곧 하느님의 숨과 육신이 통일되어 하나를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로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입니다.

한편, 고대의 신화들은 사람의 창조에 관해 신들의 필요(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기 위해)에 의해, 또는 신들의 갈등에서 사람이 나왔다(신들 간의 싸움에서 이긴 신이 죽은 신의 몸에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느님께서 창조의 결정체(창세 1장)로, 창조의 협력자(2장)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 1,26-28은 인간의 창조가, 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요 신들 간의 갈등에 의한 것도 아닌, 하느님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2장의 에덴동산 이야기는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관심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여자의 창조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여자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아주 오래된 물음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 수많은 과학자, 사상가, 현인들이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더러는 종교가 생겨난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현대의 과학은 ‘진화론’을 말하고 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칩니다. 일부 근본주의(성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빠진 이들은 ‘창조과학’이란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창조론’이 아닌 ‘창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성경은 과연 창조론을 뒷받침하고자 써졌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작성될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세상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을 쓴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자 한 말은 세상과 사람의 기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없이는 세상이든 사람이든 존재할 수도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사람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느냐(창세 1장), 진흙으로 빚어졌느냐(창세 2장)’는 질문도 이해됩니다. 서로 부딪히는 이 이야기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은 하느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 곧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3일  | 안스카    | 이경규             | 16일 | 율리안나 | 안지영 |
| 3일  | 블라시아   | 이희자             | 18일 | 마리안나 | 한말조 |
| 5일  | 아가타    | 문경영<br>정순화      | 24일 | 마티아스 | 이도영 |
| 7일  | 리차드    | 박춘실<br>Groensel | 26일 | 이사벨  | 이다운 |
| 10일 | 스콜라스티카 | 조영희             |     |      |     |

##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2일 | 요안나 | 이계선(H)           | 9일  | 알렉산더   | 문지훈(H)           |
| 4일 | 요안나 | 이순자(H)           | 10일 | 스콜라스티카 | 이정자(H)<br>오윤숙(H) |
| 5일 | 아가타 | 허윤선(O)<br>정금선(B) | 16일 | 율리안나   | 송윤아(H)<br>이경의(H) |

## ❖ 2월 성가번호 ❖

| 2월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6일  | 411 | 513 | 156 | 55  |
| 13일 | 337 | 510 | 198 | 37  |
| 20일 | 46  | 342 | 158 | 18  |
| 27일 | 2   | 218 | 157 | 4   |



## ❖ 2월 전례 봉사 ❖

| 2월  | 독서                       | 제병봉헌                    | 복사                      | 커피봉사 |
|-----|--------------------------|-------------------------|-------------------------|------|
| 6일  | 백정선(토마스아퀴나스)<br>이영자(헬레나) | 허채열(크리스티안)<br>허영란(엘리사벳)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최장용(레오) | X    |
| 13일 | 이정훈(요나스)<br>전우연(아네스)     | 이영원(베드로)<br>김정옥(크리스티나)  | 주일학교                    | X    |
| 20일 | 청년회                      | 청년회                     | 청년회                     | X    |
| 27일 | 강신행(토마스)<br>이순자(마리아)     | 배성우(도미니코)<br>심은희(안나)    | 주일학교                    | X    |



## ❖ 본당 살림살이 ❖

♥ 1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월 16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 계좌 입금(1월 12일 기준)

정정숙, 허두옥,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종,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월 12일 자 통장 잔액은 22.204,48 유로입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조출하게 살던 주인공 파흠이 땅 욕심에 눈이 번쩍 뜨이자 이사를 수없이 다닙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서 원하는 만큼의 땅을 준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즉시 머슴을 데리고 갔더니 그곳 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의 땅을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을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꿈에 부푼 파흠은 해가 뜨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걷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 숨이 차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어느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해는 이미 지기 시작했고 떠나온 곳을 바라보니 아득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으라고 달려보았지만 힘도 없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엄청난 땅을 코앞에 둔 채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뒤따라온 머슴이 파흠을 묻었는데 그가 묻힌 땅의 크기는 3아르신, 겨우 2미터 10센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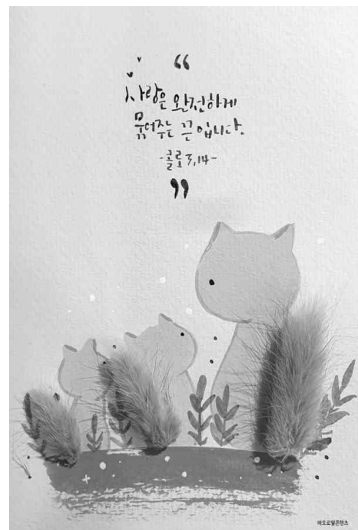
이 이야기 끝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 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흡사합니다.

세상에서 일한 만큼 벌어들인 것이 전부 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갈 생각은 까마득히 잊은 채 정신없이 달리고만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일에만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자기 인생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맙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1코린 7,31).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샤르마 박사는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에서 독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당신을 지켜본 모든 이는 기뻐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겠지만 그때 당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끝을 모르면 제멋대로 살게 되고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마련입니다. 나뭇잎의 초록 향연도 오래지 않아 바람에 흩날리며 땅 아래로 모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월 1일 화요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당일입니다. 설날 미사를 10시 만남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2월 2일 수요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집에서 사용하실 초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초 축복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2월에도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 지방공동체 소식

1. 2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예정대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봉헌합니다.



|            |                     |                      |      |            |            |
|------------|---------------------|----------------------|------|------------|------------|
| 사목 협의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장         |            |
|            |                     |                      |      | 부회장        |            |
|            |                     |                      |      | 부회장        |            |
|            |                     |                      |      | 전례부장       |            |
|            |                     |                      |      | 총무         |            |
| 주일 학교      |                     | 매월 셋째 일요일            | 만남성당 | 교감         | 최영자(파울라)   |
| 연령회        |                     | 매월 넷째 목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회장         | 정정숙(아나벨)   |
| 예비자 교리     |                     |                      | 만남성당 | 복음화        | 회장 대리      |
| 레지오<br>마리아 | 믿음의 샘 O.L.          | 매월 첫째 화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
|            | 자비의 도우미 Pt.         | 매주 화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강순행(마르가리타) |
|            | 평화의 도우미 Pt.         | 매주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현영애(헬레나)   |
|            | 사랑의 도우미 Pt.<br>(청년) | 매주 목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이가나(마르가리타) |
| 구역         |                     | 1구역                  | 반장   | 최종금(로사)    |            |
|            |                     |                      | 총무   | 김매자(베로니카)  |            |
|            |                     | 2구역                  | 반장   | 이영희(체칠리아)  |            |
|            |                     |                      | 총무   | 정정숙(아나벨)   |            |
|            |                     | 3구역                  | 반장   |            |            |
|            |                     |                      | 총무   |            |            |
|            |                     | 4구역                  | 반장   | 이순자(마리아)   |            |
|            |                     |                      | 총무   |            |            |
| 청년회        |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 회장   | 신지혜(체칠리아)  |            |
|            |                     |                      | 부회장  |            |            |
| 요셉, 마리아회   |                     | 매월 둘째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회장   | 조현영(로사리아)  |            |
|            |                     |                      | 총무   | 이정은(프란치스카) |            |
| 여성 봉사회     |                     |                      | 담당자  | 이정옥(크리스티나) |            |
|            |                     |                      |      | 김매자(베로니카)  |            |
|            |                     |                      |      | 권지연(안드레아)  |            |

## 2월 중 행사 예정표

| 일  | 요일 | 전례일                      | 단체 행사           | 비고      |
|----|----|--------------------------|-----------------|---------|
| 1  | 화  | 설                        | 10:00 미사(만남 성당) |         |
| 2  | 수  |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                 | 초 축복    |
| 3  | 목  |                          |                 |         |
| 4  | 금  |                          |                 |         |
| 5  | 토  |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                 | 브레멘 공동체 |
| 6  | 일  | 연중 제5주일                  |                 |         |
| 7  | 월  |                          |                 |         |
| 8  | 화  |                          |                 |         |
| 9  | 수  |                          |                 |         |
| 10 | 목  |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                 |         |
| 11 | 금  | 연중 제5주간 금요일(세계 병자의 날)    |                 |         |
| 12 | 토  |                          |                 | 오스나브뤼크  |
| 13 | 일  | 연중 제6주일                  |                 |         |
| 14 | 월  |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                 |         |
| 15 | 화  |                          |                 |         |
| 16 | 수  |                          |                 |         |
| 17 | 목  |                          |                 |         |
| 18 | 금  |                          |                 |         |
| 19 | 토  |                          |                 | 하노버 공동체 |
| 20 | 일  | 연중 제7주일                  |                 |         |
| 21 | 월  |                          |                 |         |
| 22 | 화  |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                 |         |
| 23 | 수  |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       |                 |         |
| 24 | 목  |                          |                 |         |
| 25 | 금  |                          |                 |         |
| 26 | 토  |                          |                 |         |
| 27 | 일  | 연중 제8주일                  |                 |         |
| 28 | 월  |                          |                 |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